



오시는길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통의파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복궁</li> <li>국립고궁박물관</li> <li>광화문</li> </ul>		
경복궁역(정부서울청사)			
서울지방경찰청	스타박스	정부서울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화문 시민열린마당</li> </ul>
성곡미술관	한국외환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로공원</li> <li>세종문화회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민국 역사박물관</li> <li>주한미국 대사관</li> <li>종로구청</li> <li>교보문고</li> </ul>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 걸어서 4분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 걸어서 2분
- 버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서 걸어서 5~10분
- 주차**  
 경복궁 동편 주차장 사용(유료)  
 자가용 이용 시 박물관 주차장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경복궁 주차장 이용  
 광화문에서 삼청동 가는 길 초입 좌측편에 위치

#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마련 학술심포지엄

2019. 06. 10.  
월요일, 10:30~17:30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 모시는글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사당, 향교, 고분 등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과 ‘회화’가 접목된 복합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입니다. 이러한 특수성 탓에 건조물의 부속품이자 보조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지금까지 다른 문화재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벽화문화재의 조사·연구와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 올해 사찰벽화를 중심으로 한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마련’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벽화문화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보존방안을 고민해보는 자리에 부디 오셔서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문화재청장 정 재 숙



보물 제1757호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  
약사여래삼존도(동쪽 벽면)



## 세부일정

구분	순서 (진행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소속)	토론자 (소속)
10:20~10:30		등록		
10:30~10:40		개회사 및 인사	박한규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사회자 : 백현민 (문화재청 사무관)
1부 벽화문화재의 미술사적 의미와 보존관리 역사 (10:40~11:50)	제1발표 (10:40~11:15)	한국의 사찰벽화 : 시대별 장엄요소와 표현 영역	박은경 (동아대학교 교수)	박도화 (문화재청 감정위원)
	제2발표 (11:15~11:50)	우리나라 벽화 보존처리의 발자취	한경순 (건국대학교 교수)	
점심 식사 (12:00~13:00)				
2부 건조물과 상생하는 벽화문화재의 보존관리 (13:10~14:20)	제3발표 (13:10~13:45)	건조물 내의 벽화의 현황과 보존관리	허상호 (사성보문화재연구원 팀장)	손영문 (문화재청 전문위원)
	제4발표 (13:45~14:20)	건조물의 노후와 구조 변위에 따른 벽화 보존관리	강 현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	이천우 (문화재청 전문위원)
3부 벽화문화재 분리와 수장관리에 관한 고찰 (14:30~15:40)	제5발표 (14:30~15:05)	우리나라 벽화의 분리와 원위치 복원에 관한 기술적 검토	이화수 (충북대학교 초빙교수)	김용선 (국고려문화재보존 연구소 대표)
	제6발표 (15:05~15:40)	벽화문화재의 수장관리 한계와 개선 방안	나운호 (불교중앙박물관 연구사)	이경민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연구사)
휴식 (15:40~16:00)				
종합토론 (16:00~17:30)	토론 (16:00~17:30)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전반에 관한 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자·토론자 상호 간 질의 후 청중 질의응답	좌장 : 김정희 (원광대학교 교수)